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5년

끌어주고 밀어주고 예술혼 대잇기

불모 3代 권정학씨네

온화한 눈섭, 반개(半開)한 눈은 피안을 일러주는 듯,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흐르는 자애로운 미소는 대하기만 해도 한없이 포근하다. 수많은 이들의 귀의처가 되는 불 보살상 조성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 과거 수많은 선근공덕을 쌓은 결과가 아닐까. 하물며 당대는 물론 그 아버지부터 불모의 일을 하고 형제와 자식, 손자까지 3대가 불모로서 불상을 만들고 탱화를 그리고 탑을 조성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중한 부처님과의 인연인가.

권정학 월정사 석가불등 5백불상 조성

권정환 낙산사 해수관음 조각 대표작

권영관 탱화 3백점 봉안… 불화 달인

◇4월 24일 서울에서 있은 결혼식 때문에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불모' 가족들.(사진 앞줄 오른쪽 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정학, 권정환, 이상배, 권영관 씨.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참구하며 절을 향하는 발걸음이 분주한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두고 중생들의 예경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 탑, 탱화를 조성하는 불모(佛母)의 연을 3대째 이어오고 있는 권정학씨 일가를 찾았다. 부친 용성 스님에서 출발한 불모의 가업은 권정두, 정학, 정진, 정환 4형제 모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권정학(82·권정학불교미술원장) 선생은 불상 조성, 동생 정환(67·해동불교미술원장)씨는 탑 조성, 만형이었던 故 권정두 선생의 막내아들 영관(61·경암불교미술원장)씨는 탱화 조성으로 불법의 정수를 형상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형님, 아우, 조카라는 가족의 연으로 만났지만 이제 이들 일가는 부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보여주며 중생들의 마음 한가운데 여실히 전해주는 불교예술의 한 길에서 정진과 예술혼을 교감하는 더 큰 인연의 고리를 맺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부친 용성 스님 맥 이어

권정학 선생의 일가 모두는 불상, 탱화, 탑 등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를 이루어낸 작가들로 명성이 높다. 60년이 넘게 부처님을 조성해온 권정학 선생은 팔순을 넘긴 지금도 불상 조성을 멈추지 않고 있어 가족들은 물론 후학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조선시대 제일 가는 대불모였던 유성선사, 수룡화상의 맥을 이은 양완호스님, 부친이었던 용성스님의 정통 계보에 닿아있는 권정학 선생의 불상 조성은 1938년 만형이었던 권정두 씨와 함께 한 천태암 불사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불모의 수업을 시작한 만형 정두 씨를 따라 10대부터 시작했던 부처님 조성은 팔순을 넘긴 현재까지 이어져 월정사 석가여래좌상, 석불사 11면 관세음보살상, 사천왕상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보살상을 조성했다. 기록으로 남은 것만도 5백 여구에 이를 정도다.

51살이 되던 1970년 제1회 불교미술전람회에서 관세음보살입상으로 대상인 문화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세간에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불상 조성을 이어온 뒤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스님들보다 더한 엄격함이 요구되고 한치의 잡념 없는 일심으로 임해야 하는 작업의 고단함 앞에 뛰어난 조각가요, 탱화조성 불모였던 형 정두 씨와의 공동작업이 큰 힘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1971년 57세로 세상을 떠난 권정두 씨가 아우들과 함께 조성한 월정사 본존불은 '신라시대 석굴암 본존불 이후 최고의 작품' 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집안에서 하는 일 자체가 부처님 조성하는 것이고 보니 특별히 앉혀 놓고 불교 공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 행동 따라 하다보면 그것이 합장이었고, 부처님 조성하는 일이었고, 또 그것은 부처님 예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집안의 분위기 때문인지 막내였던 정환 씨도 숙명처럼 불교미술에 입문했다. "어릴 때는 불교예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정환 씨는 그러나 누구도 따라 잡지 못할 탄탄한 기초와 예술 정신을 가진 조각가로 평가받고 있는 불모다. 형님들의 작업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불모의 일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일상이 되었고 삶이 되었다.

◇권정학 선생의 최근작인 '관문사 옥관음상'

4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불모로 살고 있는 정환 씨는 주로 석물로 된 석불, 석탑, 석비 조성에 뛰어난 솜씨를 보이고 있다.

1972년 낙산사에 동양 최대 석조 해수관세음보살 입상을 조성한 불모로 잘 알려진 정환 씨는 영덕 평통사에 국내 최대 단일석 관세음보살 조성, 삼광사 9층 8면 석탑을 조성하였다.

"불모라는 말이 요즘은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불교의 상징인 불상, 탑, 탱화 조성에서 철저한 고증을 통한 전통을 바탕으로 작가만의 독특한 창작혼을 불어넣는 것이 불모의 역할이지요. 불법에 대한 경외와 찬탄을 자아낼 수 있는 탑신, 불상을 조성하는 공통의 업을 가진 우리 가족은 부처님과의 인연이 그만큼 지중합니다."

불모라는 칭호에 걸맞는 작가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우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권정학 선생의 일가는 서로가 서로를 탁마하며 가족이라는 공동 책임 아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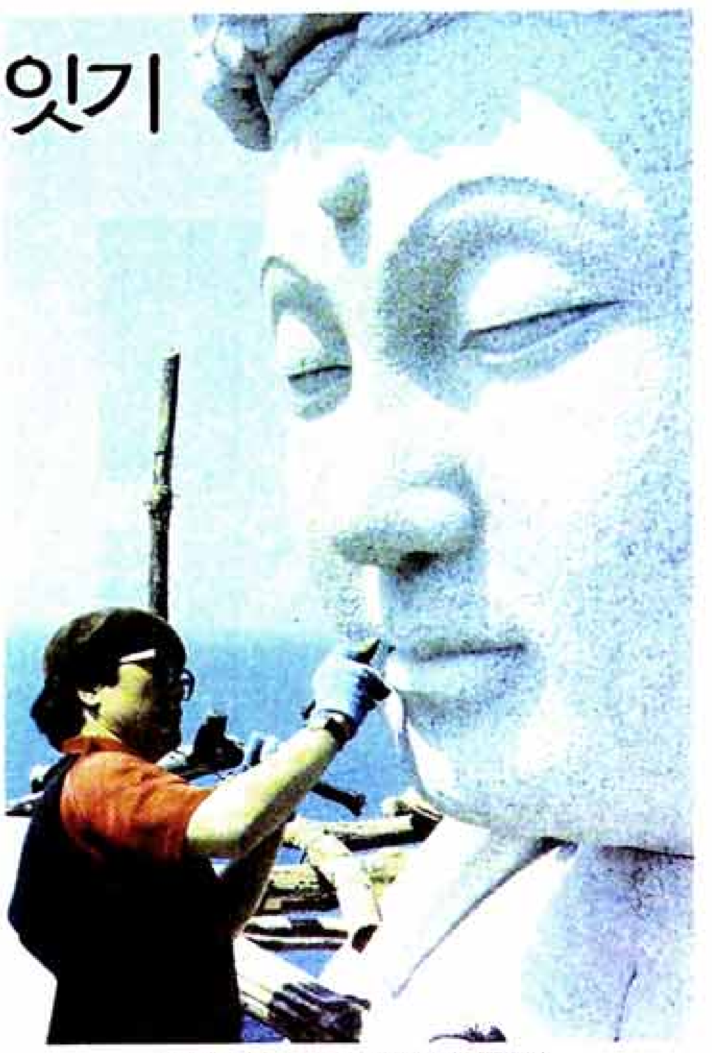
불상 조성과 석조물 조성으로 널리 알려진 숙부들의 불교조각을 이어 권정두 씨의 막내 아들 영관 씨도 불교미술에 입문했다. 그것은 가족 공동의 업을 해결하려는 단호한 선택인 동시에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다. "불교조각은 숙부님들이 최고의 경지를 이루었으니 불화에 매진해 최고가 되어야 겠다"고 발심한 영관 씨는 전통적인 기법인 석채 탱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 금강사, 구인사, 삼광사, 관암사 등 3백여 점에 달하는 탱화를 조성했으며 현재는 경북 봉화 축서사의 후불탱화와 신중탱화를 석채로 조성중이다. 또한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불교미술 전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친, 숙부님들 모두 가족이기에 앞서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불모입니다. 그분들이 가족의 연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길을 걷는 제게는 큰 힘이고 자랑입니다."

영관 씨는 돌아가신 부친과 숙부들이 둘도 없는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크게 꾸짖는 스승이라고 했다.

"부처님을 채색하다 보면 앞이 꽉 막히는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진척은 없고 몰두가 되지 않을 때 훌쩍 작업실을 나서서 부친이 조성해 놓은 불상이나 탱화가 모셔진 곳을 찾곤 하지요." 그곳에 모셔진 부처님을 참배하면서 부친의 음성을 들은 듯 힘을 얻고 곧 그것은 불보살님들의 위신력이 되어 새로운 창작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작업 중의 이 같은 교감이나 도움은 정환 씨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가끔 동생의 작업실을 찾는 권정학 선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엄격한 기준의 비평이 되어 부족함을 보완하는 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낙산사 해수관음상을 조성하고 있는 권정환 씨.

"가족이어서 서로가 더욱 철저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셈이지요. 가족 전체의 자존심과 명예를 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비록 내 개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도 그것은 좁게는 불모의 업을 이어온 가문의 일이고 넓게는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스스로를 일깨우고 가족들끼리도 서로를 지켜보게 되지요."

일할땐 무아경지 몰입

인간으로서 불상을 조성하는 일은 어느 순간 인간 이상의 경지를 요구한다. 나(我)라는 것이 없어진 몰입의 경지가 되고 조성하는 나와 조성하고 있는 불상, 탑, 불보살들의 옷자락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보았을 때 최고의 불모로 칭송받게 되는 것이다.

불상 조성이면 불상조성, 탱화면 탱화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불모로 활동하는 가족들이고 보니 가족들의 작품이 한 사찰에 모셔진 예도 많다. 서울 법안정사, 부산 천태암, 삼광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 고인이 된 권정두 씨와 권정학 선생, 정환, 영관 씨가 함께 참여해 조성한 불상, 탱화, 불상 등이 모셔져 있다.

"요즘은 불모의 일을 단순한 기술이나, 돈벌이를 위한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조금만 힘이 들어도 그만두게 되고 혼을 불어넣은 작품이 드문 형편이에요. 지중한 부처님 인연과 몇 천년 뒤를 내다보는 정성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권정학 선생 일가는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기도였으며 포교였다. 평생을 이어온 기도와 수행은 이제 만인이 엎드려 경배하는 숱한 불상과 탱화, 탑으로 조성되어 있으니 권정학 선생 일가가 이루어낸 일은 불법을 전하는 백마디 말 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시방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들이 널리 알려진 세 사람 외에도 권정두 씨의 여동생 아들인 이상대(49)씨가 동방불교대학 조형과에서 불교조각을 가르치며 불교조각가로 활동중이고, 권정학 선생의 장남인 영식(50)씨도 부친의 일을 도우며 불모 수업을 받고 있다. 정환 씨의 장남인 현대(30)씨 또한 남다른 솜씨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방과후면 아버지 어깨 너머로 불화를 배우곤 했던 어릴 적 영관 씨를 재현하듯 이제는 영관 씨의 초등학생 딸이 작업실에 들어와 불화를 따라 그리며 아버지의 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활 가운데 공기를 호흡하듯 불모의 삶을 접하며 살아온 권정학 선생 집안의 지중한 불연은 계속해 대물림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불모란

불상 조성·그리는 사람

단청, 불화, 불상 등 불상을 조성하거나 그리는 사람을 높여서 '불모(佛母)' 라고 부른다. 말 자체가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 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아무에게나 이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예는 물론이고 연륜과 활동력까지 겸비했을 때 비로소 '불모' 라 한다.

예경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을 조성하는 일을 하는 불모들에게는 금기사항도 많다. 날짜를 정해 목재를 자르고 유황과 한약재를 달인 물로 깨끗이 씻는 것, 금속으로 불상을 만들 경우 재료를 세속의 용기에 담지 않는 것, 한 불상을 만들다가 도중에 다른 불상으로 바꾸지 않는 것 등. 달리 말하면 행동은 절제된 규율을 따르고 마음은 불상을 향한 순일한 정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모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불모로 활동하는 이들은 단청장인 만봉·석정 스님을 비롯 1백 여명에 이른다.

발명특허NO. 0060218

現像所願香

현 상 소 원 향

소원성취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건강, 사업, 학업등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現像所願香이 소원성취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소림사의 달마대사가 오랜 面壁修道로 달마의 형상이 面壁洞 벽면에 投影되어 나타나듯이 現像所願香에도 여러분의 念願이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소원의 성취는 僥倖이나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現像所願香이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을 증폭시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本 製品의 特性

本 現像 所願香은 燃燒된 後에도 남은 재가 부서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本來의 形態를 維持함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燃燒가 進行되면서 재 위에 부처님의 形象과 함께 貴下께서 念願하시는 文句가 나타나는 本社의 發明特許品입니다. 本 香은 정신을 맑게 하여주고 心身의 氣運을 북돋아 주는 人體에 有益한 最上質의 天然材料만을 嚴選하여 使用하였으며 一切의 人工香料는 添加하지 않았습니다.
人體에 有益함은 물론 燃燒時 담배냄새, 기타 惡臭제거에 卓越한 효과로 室內의 공기가 맑아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재료 : 참숯, 자단향, 모과향, 목향, 백단향

使用時 有意 事項

· 향에 표시된 부분이 정면 하단에 오도록 하여 향꽂이에 꽂아 주십시오
· 연소된 향이라 할지라도 화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향이 굵은 관계로 처음 불을 붙이실 때 시간이 여타 향에 비하여 조금 더 요구됩니다
· 제조 유통 중 파손된 제품은 본사 또는 판매점에서 교환하여 드립니다

(株) 富好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6 ☎ (02) 733-1235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38-13 ☎ (053) 764-6610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